

# 해외출장복명서

기 간: 2016. 7. 10~2016. 7. 15

출장지: 미국

출장자: 이상건 선임연구위원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 미국, 워싱턴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2. 출장기간 : 2016. 7. 10 (일) ~ 15 (금)

3. 출 장 자 : 이상건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4. 출장목적

□ IDB-KRIHS 국제공동세미나 “Migrating from a Traditional City Management to a Smart City” 참석 및 국내외 스마트시티 구축현황 및 편익사례 공동연구과제의 결과발표, 한국의 스마트시티 시스템 홍보 및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

□ 세계은행과의 스마트시티 글로벌컨설팅 사례분석 세미나 및 향후 협력방안 협의

## II. 출장일정

| 일자          | 시간          | 업무수행내용                                                                                        | 비고                                                        |
|-------------|-------------|-----------------------------------------------------------------------------------------------|-----------------------------------------------------------|
| 7/10<br>(일) | 10:15       | 인천공항 - 워싱턴 도착(11:20)                                                                          | KE 093<br>(13시간 50분)                                      |
| 7/11<br>(월) | 11:00-15:00 | IDB-KRIHS 세미나 사전준비 워크숍 참석 및 연구결과 발표                                                           | 참가자 :<br>국토연구원, IDB,<br>스마트시티 사례<br>발표자 등                 |
|             | 17:00-18:00 | IDB 매니저 및 기재부 국장(IDB 파견)과 회의                                                                  | 참가자 :<br>국토연구원, IDB,<br>기재부 국장(IDB<br>파견)                 |
|             | 18:30-20:30 | 환영 만찬                                                                                         | 참가자 :<br>국토연구원, IDB,<br>스마트시티 사례<br>발표자                   |
| 7/12<br>(화) | 08:30-18:00 | IDB-KRIHS 국제공동세미나 “Migrating from a Traditional City Management to a Smart City” 참석 및 연구결과 발표 | 참가자 :<br>국토연구원, IDB,<br>스마트시티 사례<br>발표자, 기술업체<br>동향 발표자 등 |
| 7/13<br>(수) | 10:00-12:00 | 세계은행 스마트시티 세미나 글로벌컨설팅 사례발표 “KRIHS’s Smart City Development Projects in India and LAC”         | 참가자 :<br>국토연구원,<br>세계은행                                   |
|             | 14:00-15:00 | 세계은행과 스마트시티 분야 향후 협력방안 협의                                                                     |                                                           |
| 7/14<br>(목) | 13:35       | 워싱턴 공항 출발                                                                                     | KE 094<br>(14시간 25분)                                      |
| 7/15<br>(금) | 17:00       | 인천공항 도착                                                                                       |                                                           |

### III. 수행사항

#### 1. IDB-KRIHS 세미나 사전준비 워크숍 참석 및 연구결과 발표

□ 일시 및 장소 : 2016. 7. 11(월) 11:00~15:00, IDB 워싱턴본부 Room B-300

□ 참석자

- 국토연구원 : 김동주 원장, 이상건 선임연구위원, 이재용 연구위원, 권희서 연구원
- IDB : Bernardo Guillamon, Ellis Juan, Mauricio Bouskela, Carolina Barco 등
- 패널리스트 : Dr. Eran Toch, Jaime Guitierrez Bayo, Clara Schreiner, Dario Amar 등



▲ 이상건 선임연구위원 발표 및 토론



▲ 이재용 연구위원 토론참여

□ 행사일정

- Ellis Juan, Division Chie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환영사
- IDB-KRIHS 국제 스마트시티 사례조사 공동연구 소개 - Mauricio Bouskela (IDB), 이상건 선임연구위원(KRIHS)
- 1st Session: 안양, 메테진, 싱가포르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 이상건 선임연구위원, Dario Amar, 권희서 연구원
- 2nd Session: 산탄데르, 텔아비브, 송도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 Jaime Guitierrez Bayo, Eran Toch, 이상건 선임연구위원
- 3rd Session: 라우테자네이루, 올랜도, 판교 및 남양주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 Clara Schreiner, 권희서 연구원, 이상건 선임연구위원

## □ 주요 논의내용

- 스마트시티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많은 중남미 국가들에서 스마트시티 도입 시 프라이버시 문제를 우려함
  - 한국의 경우,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 CCTV 설치를 시에 요청하는 일이 많으며 CCTV가 잘 설치된 동네가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어 집값이 오르기도 함
  - CCTV가 신속한 범죄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안양시의 경우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스태프가 3교대로 24시간 CCTV들을 모니터링하여 범죄발생을 예방하기까지 함
  - CCTV 설치 위치가 도로, 골목길 등 공공외부장소이므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생각을 크게 하지 않는 듯함
  - CCTV의 장점이 많은 만큼 CCTV 자료관리 및 보안 문제, 설치위치에 신경써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최소화한다면 시민안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스마트시티 사업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
  - 한국은 주로 신도시 개발 시에 발생하는 Development gain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개발을 진행함 (이때 스마트시티의 커버리지는 신도시 주변 구시가지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음)
  - 스마트시티 구축비용은 따로 놓고 보면 커 보일지 몰라도 신도시 전체의 사업비용에 비하면 적은 퍼센티지라, 신도시 전체의 사업비용의 일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이제까지 한국은 주로 중앙정부 주도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진행함. 지자체들끼리 경쟁을 시켜 몇 개를 선정하여 매칭펀드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public-led 자금조달을 시행함
  - 그러나 최근 송도와 같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구조를 도입한 approach가 늘어나고 있음. 송도의 경우 “U-city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인천시 및 민간업체(KT 및 Cisco)가 주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인천시가 대주주로서 민간업체의 자본을 활용하는 동시에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함
- 스마트시티 사업 도입에 가장 중요한 factor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장 필요한 것은 제도 및 행정적인 부분이다. 특히 중남미 지역은 정권 교체 또는 시장이 바뀌며 공무원 전반이 교체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영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큰 도전과제라고 생각한다. 스마트시티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전문공무원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다.

## 2. IDB 매니저 및 기재부 국장(IDB 파견)과 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6.7.11.(월) 17:00~18:00, IDB

□ 참석자

- 국토연구원 : 김동주 원장, 이상건 선임연구위원, 이재용 연구위원, 권희서 연구원
- IDB : Barnardo Guillamon, Victoria Florez Toro
- 기재부(IDB 파견) : 황정훈 국장, 유창연 과장



▲ Barnardo Guillamon 환영말씀



▲ 김동주 원장 인사말씀

□ 주요 논의내용

- Barnardo Guillamon (Manager of Outreach and Partnership, IDB) 환영말씀
- 국토연 김동주 원장 인사말씀
- 공동세미나 개최에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함
- IDB에서는 최근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Division (HUD)를 신설하여 주택 및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중요도를 강화시킴 (Division Chief: Ellis J. Juan)
- HUD 부서를 통하여 주택 및 도시개발 분야에서의 향후 국토연구원과 미주개발은행과의 협력관계가 더 발전되기를 기대함
- IDB 파견 근무 중인 기재부 황정훈 국장 및 유창연 과장에게도 긴밀한 협력을 부탁함

### 3. IDB-KRIHS 국제공동세미나 “Migrating from a Traditional City Management to a Smart City” 참석 및 연구결과 발표

□ 일시 및 장소 : 2016.7.12.(화) 08:30~17:15, IDB 워싱턴본부 Room CR-2

#### □ 참석자

- 국토연구원 : 김동주 원장, 이상건 선임연구위원, 이재용 연구위원, 권희서 연구원
- IDB : Luis Alberto Moreno 총재, Juan Pablo Bonilla, Bernardo Guillamon, Ellis Juan, Mauricio Bouskela, Carolina Barco, Diego Molano, Matteo Grazzi, Horacio Terraza 등
- 패널리스트 : Dr. Eran Toch, Jaime Guitierrez Bayo, Clara Schreiner, Dario Amar, Jorge Vargas, Luis Gomez Liste, Alfredo Martin Almaraz, Marlyn Zekowitz, Alberto Rodriguez Gonzalez, Maitane Aramburu 등



▲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의 개회사



▲ 미주개발은행 모레노 총재의 폐회사



▲ 행사 후 모레노 총재와의 기념촬영



▲ 행사 후 단체사진



▲ 한국의 4대 스마트시티 발표



▲ 세미나 참석자

#### □ 행사일정

- Welcoming Remarks : 국토연 김동주 원장, Juan Pablo Bonilla (Manager of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epartment, IDB), Bernardo Guillamon (Manager of Outreach and Partnerships, IDB)
  - 스마트시티 국제사례연구 공동세미나 개최에 기쁘게 생각하며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중남미 도시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램
  - IDB와 KRIHS의 이 분야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함
- Panel 1 - International Case Studies: 국제사례발표
  - 좌장 : Diego Molano
  - 발표자 및 패널리스트 : Dr. Eran Toch (Tel Aviv 사례), Jaime Guitierrez Bayo (Santander 사례), Heeseo Rain Kwon (Orlando and Singapore 사례)
- Panel 2 - Strategic Partners: 스마트시티 솔루션 기술 및 적용사례발표
  - 좌장 : Horacio Terraza
  - 발표자 및 패널리스트 : Jorge Vargas (Tigre 사례), Luis Gomez Liste (스마트교통기술), Pedro Julio Uribe, Alfredo Martin Almaraz (발렌시아 사례)
- Panel 3 - International Case Studies
  - 좌장 : Matteo Grazzi
  - 발표자 및 패널리스트 : Dr. Sang Keon Lee (한국 4개 도시 사례), Dr. Jae Yong Lee (한국 스마트시티 법제도 수립 및 도입사례), Clara Schreiner (Rio de Janeiro 사례), Dario Amar (Medellin 사례)

- Panel 4 – Strategic Partners: 스마트시티 솔루션 기술 및 적용사례발표
  - 좌장 : Carolina Barco Isakson
  - 발표자 및 패널리스트 : Marlyn Zelkowitz (SAP), Alberto Rodriguez Gonzalez (Everis), Maitane Aramburu (Grupo Mondragon)
- Smart City Guide Presentation: Mauricio Bouskela
- Closing Remarks: Ellis J. Juan (Division Chie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Division, IDB), IDB 총재 Luis Alberto Moreno

#### □ 주요 논의내용

-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 : 한국이 지난 20여 년간 도시교통혼잡, 재난 및 범죄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해 온 스마트시티 구축경험과 노하우가 효과적으로 공유되어, 현재의 중남미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함
- 총 14명의 전세계 스마트 시티 관련 전문가들이 세계 10대 스마트시티 개발사례를 발표, 마이크로 소프트, SAP 와 같은 기술업체의 최신 기술동향도 함께 소개
- 본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안양, 송도, 판교, 남양주 등의 대표적 한국 스마트도시의 성공적 구축사례를 소개하고 타국가의 경우와 차별화 되는 한국형 스마트도시사업의 우수성을 소개
  - 이재용 국토연 연구위원 :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현황과 과제’ 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 개발사를 설명하고, 정부, 민간, 학계, 산업계의 역할분담체계와 법제도 지원체계 등의 중요성을 설명
  - 이상진 국토연 선임연구위원 : ‘한국의 4대 스마트도시 개발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안양, 송도, 판교, 남양주 등의 대표적인 스마트도시 개발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 이들 한국형 스마트도시의 서비스의 질, 시민참여도, 관련기관간의 협업체계 등의 측면에서의 우수성을 피력
  - 특히, 스마트시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가지 이슈로서, 사적생활보호, 맞춤형 설계, 공공부문과 추진주체 역할 그리고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제시하여 많은 토론과 관심
- 미주개발은행의 모레노 (Luis Alberto Moreno)총재 폐회사 : 향후 중남미 지역의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이 점차 핵심지원사업으로 대두될 것이며,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국의 풍부한 스마트시티 구축경험과 노하우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

#### 4. 세계은행 스마트시티 세미나 글로벌컨설팅 사례발표 “KRIHS’s Smart City Development Projects in India and LAC”

□ 일시 및 장소 : 2016.7.13.(수) 10:00~11:30, 세계은행 워싱턴본부

□ 참석자

- 국토연구원: 이상건 선임연구위원, 이재용 연구위원, 권희서 연구원
- 세계은행: Hyunggeun Wang, Oleg V. Petrov, Taehyung Kim, Jun Lee, Tatiana Peralta Quiros 등 현장참여 (기타 참석자들은 비디오 컨퍼런스로 참여)



Korean Green Growth Partnership,  
Urban Mobility Transport GSG & The Smart Cities KSB presents

## KRIHS's Smart City Development Projects in India and LAC

---



Wednesday, July 13, 2016  
10:00-11:30AM EDT  
Room: **MC C2-520**

### RSVP

Join via WebEx:  
Meeting number: 732-741-807  
Meeting password: QGPF7csp

Join by phone  
1-650-479-3207 Call-in toll number (US/Canada)  
Access code: 732 741 804  
[Global call-in numbers](#)

Contact: [Tatiana Peralta-Quiros](#)

---

*Dr. Sang Keon Lee will present the Smart City consulting cases of 3 cities in Tamil Nadu, India and 5 cities in LAC directed by Dr. Sang Keon Lee, Senior Research Fellow of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RIHS) since 2011. Dr. Lee will briefly explain the major contents of smart city basic design for abovementioned cities and the lessons learned during the consulting projects. Dr. Jae Yong Lee, Research Fellow of KRIHS is another expert in smart city development and he will participate in the seminar for active discussion.*

---

**Presenter:** Dr. Sang Keon Lee, Ph.D., Senior Research Fellow & Director of National Infrastructure Research Division (KRIHS)  
**Chair:** Shomik Raj Mehendiratta, Global Lead - Transport & Climate Change (GTIDR)  
**Discussant:** Hyung Gun Wang, Senior Economist (GPSURR)

▲ 세미나 안내



▲ 세미나 발표 사진



▲ 세미나 토론 사진

#### □ 주요 논의내용

- 이상건 선임연구위원 : 국토연에서 수행한 지난 5년간의 스마트시티 글로벌컨설팅 사례발표 (주로 인도 및 중남미 지역) 및 스마트시티 사업의 5가지 이슈 논의
  - Privacy vs. Security?
  - White elephant vs Must-have item?
  - Public-driven vs Private-driven?
  - Ready-made vs Tailor-made?
  - Rotating staff vs Dedicated staff?
- Discussant 왕형근 박사 : Q&A (이상건 선임연구위원, 이재용 연구위원 답변)
  - Q. Top-down approach vs Bottom-up approach?
  - A. 두 방식 간의 밸런스가 중요함. 한국의 경우 정부주도의 top-down 방식을 주로 사용함. 중앙정부가 스마트시티 (한국에서는 ubiquitous city, u-city라고 불리었음) 관련 법·제도를 수립하여 국내 여러 도시에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이 방식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국적 도입을 가능하게 하며 표준화에 용이함. 한국의 경우 지자체 간의 경쟁 (주로 제안서 평가)을 통하여 중앙정부가 매칭펀드를 제공하는 형식의 약간의 bottom-up 방식도 도입하였음. 최근에는 송도와 같이 민관협력체계를 통한 스마트시티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 주도이기 는 하지만 민간의 역할이 커졌다는 면에서 전보다 더 bottom-up 방식일지도 모르겠음. 세계 다른 도시들은 start-up 벤처회사들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bottom-up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도 특히 자금조달 문제에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함. 어느 정도의 top-down 방식은 국가차원에서 스마트시티 컨셉에 대한 컨센서스를 확보하고 시스템 호환성을 추구하는 데 효과적이며, bottom-up 방식은 특히 스마트시티 도입을 위한

정부예산이 충분치 않은 개도국 도시들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Q.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스마트시티의 계획시기와 실제 구축시기 간의 갭이 발생하여 최신기술의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A.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구축 후 업데이트도 어렵지 않음. 더 중요한 문제는 오퍼레이터가 도시의 needs에 따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임. 예를 들어 모두가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듯이, 어떤 첨단기술은 특히 개발도상국 도시들의 needs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또한 cost-effective하지 않은 경우도 많음. 일단 지금 사용가능한 기술로 시작하여 도시의 needs에 맞게 점점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4. 세계은행과 스마트시티 분야 향후 협력방안 협의

□ 일시 및 장소 : 2016.7.13.(수) 14:00~15:00, 세계은행 워싱턴본부

□ 참석자

- 국토연구원: 이상건 선임연구위원, 이재용 연구위원, 권희서 연구원
- 세계은행: Eunjoo Lee, Hosung Lee, Taehyung Kim, Jun Lee 등



▲ 회의 사진

□ 주요 논의내용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시와 도시계획, 수자원 및 스마트시티 관련 대학원교육과정에 대한 협력사업을 추진 중 (주요 stakeholder: 서울시 및 서울시립대학)
  - 현재 아디스아바바시와 서울시 사이에 협력이 진행 중
  - 국토부에서 에티오피아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부탁
- KGGIF 팀이 아디스아바바시에 한국 stakeholder들과 함께 현지출장을 계획 중, 아디스아바바시의 needs에 대한 파악이 필요
- 국토연구원의 참여가능성 논의

## IV. 부록

### 1. 보도자료

|  | 보 도 자 료                                                                          |                                     |
|-----------------------------------------------------------------------------------|----------------------------------------------------------------------------------|-------------------------------------|
|                                                                                   | 작 성                                                                              | 인프라정책연구센터 이상건선임연구위원(☎ 031-380-0337) |
|                                                                                   | 배 포                                                                              | 대외협력팀(☎ 031-380-0428, 0125)         |
| 보 도 일 시                                                                           | 2016년 월 일( )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인터넷·통신은 2016년 월 일(06:00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중남미 스마트시티 사업진출을 위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 적극 알려

- 국토연, 미주개발은행과 스마트 시티 관련 국제공동세미나 개최 -

-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은 지난 7월 12일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총재 :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과 공동으로 「Migrating from Traditional City Management to the Smart City; 전통적 도시관리에서 스마트시티로 전환」이라는 주제로 국제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7월 12일 오전 9시~ 18시, 워싱턴 DC 미주개발은행 본부 국제세미나실).
-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은, 한국이 지난 20여 년간 도시교통혼잡, 재난 및 범죄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해 온 스마트시티 구축경험과 노하우가 효과적으로 공유되어, 현재의 중남미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어서, 총 14명의 전세계 스마트 시티 관련 전문가들이 세계 10대 스마트시티 개발사례를 발표하였고, 마이크로 소프트, SAP 와 같은 기술업체의 최신 기술동향도 함께 소개되었다.

□ 본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안양, 송도, 판교, 남양주 등의 대표적 한국 스마트도시의 성공적 구축사례를 소개하고 타국가의 경우와 차별화 되는 한국형 스마트도시사업의 우수성을 소개하였다.

- 이재용 국토연 연구위원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현황과 과제’ 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 개발사를 설명하고, 정부, 민간, 학계, 산업계의 역할 분담체계와 법제도 지원체계 등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 이상건 국토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4대 스마트도시 개발사례와 시사점’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안양, 송도, 판교, 남양주 등의 대표적인 스마트도시 개발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이들 한국형 스마트도시의 서비스의 질, 시민참여도, 관련기관간의 협업체계 등의 측면에서의 우수성을 피력하였다.
- 특히, 스마트시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가지 이슈로서, 사적생활보호, 맞춤형 설계, 공공부문과 추진주체 역할 그리고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제시하여 많은 토론과 관심을 모았다.

□ 한편, 미주개발은행의 모레노 (Luis Alberto Moreno)총재는 폐회사를 통해, 향후 중남미 지역의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이 점차 핵심지원사업으로 대두될 것이며,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국의 풍부한 스마트시티 구축경험과 노하우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지난 2011년부터 국토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지식공유 사업(KSP)과 한국신탁기금(KTF) 등을 통해 브라질 고이아니아, 자메이카 몬테고베이,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등의 스마트시티 기본설계 컨설팅을 활발하게 추진한 바 있으며, 특히 최근 1년간은 IDB 와 공동으로 세계 10대 스마트시티 구축사례 분석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이번에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 지난 5년 동안 국토연구원은 다양한 연수와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콜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등의 중남미 핵심협력국가들의 고위공무원을 초청하여 안양, 송도, 판교 등의 대표적인 한국 스마트시티를 견학시킴으로서 IDB 내의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붐을 조장한 바 있다.

□ 최근 스마트시티사업의 해외진출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연구원은 IDB 와의 다양한 국제협력 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향후 중남미지역의 스마트 도시구축사업에 한국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발판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참고1

행사 관련 사진과 자료 모음

□ 행사 사진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의 개회사



미주개발은행 모레노 총재의 폐회사



행사 후 모레노 총재와의 기념촬영



행사 후 단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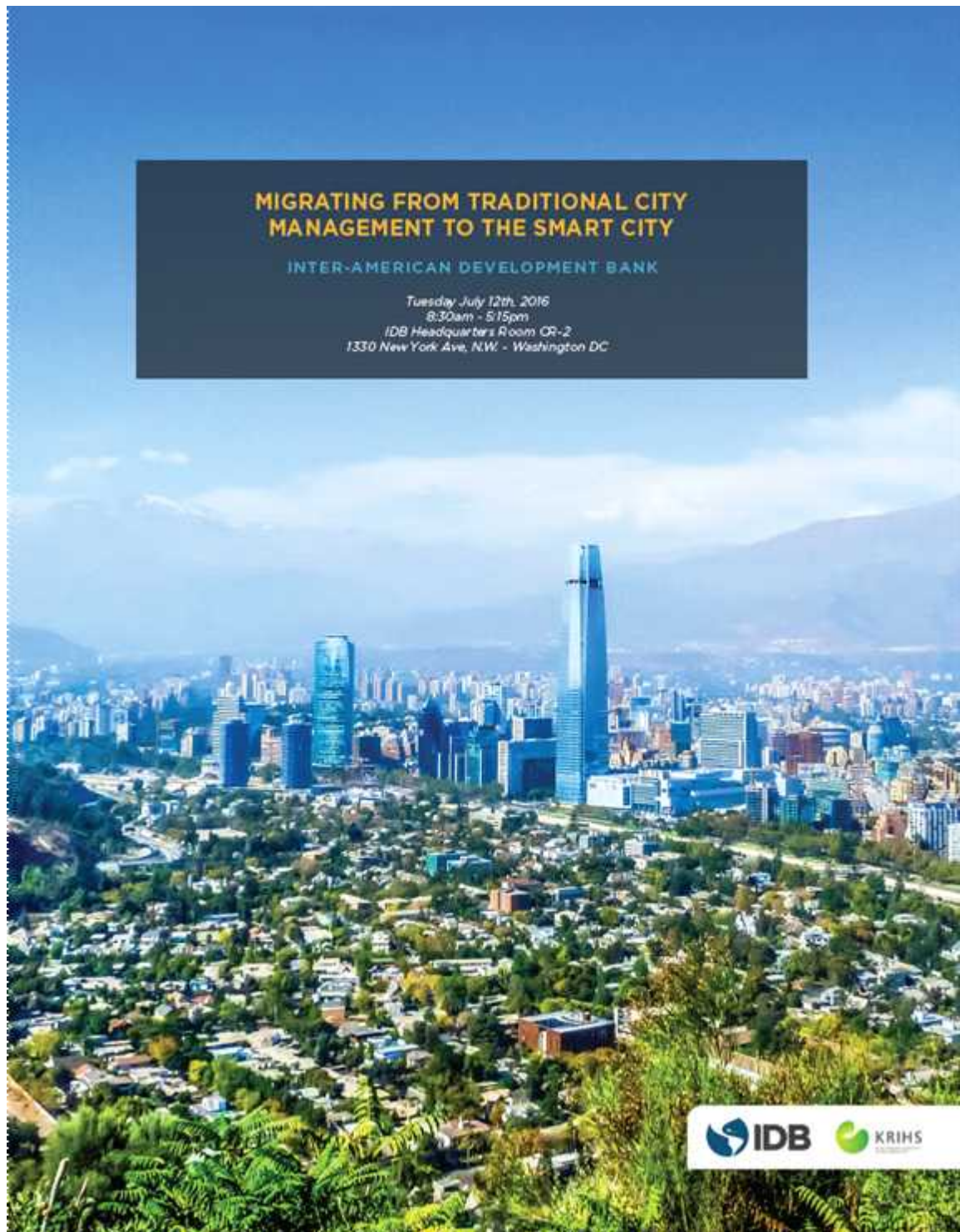


한국의 4대 스마트시티 발표



세미나 참석자

□ 행사 브로셔 표지



□ 행사 참여 및 발표자료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이상건 선임 연구위원(☎031-380-0337)에게 문의하면 된다.

## 2. 한국건설신문 기사



건설뉴스

오피니언

공사/계약

주택/건축

자재/기술

전문/조경

전체기사 | 핫이슈 | 정책/제도개선 | 건설뉴스 | 토론/세미나 | 문화레저

건설뉴스  
토론/세미나

### 국토연, 미주개발은행과 스마트 시티 관련 공동협력 강화

중남미 스마트시티 사업 진출에 한국 진출 확대 추진

이오주는 기자 | yoje@conslove.co.kr



승인 2016.07.19



한국건설신문 이오주는 기자 =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은 지난 12일 워싱턴 DC 미주개발은행 본부 국제세미나실에서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국제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이 지난 20여 년간 도시교통혼잡, 재난 및 범죄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해 온 스마트시티 구축경험과 노하우가 효과적으로 공유돼, 현재의 중남미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회사를 하는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

이어서 총 14명의 전세계 스마트 시티 관련 전문가들이 세계 10대 스마트시티 개발사례를 발표했고, 마이크로 소프트, SAP 와 같은 기술업체의 최신 기술동향도 함께 소개됐다.

‘전통적 도시관리에서 스마트시티로 전환’(Migrating from Traditional City Management to the Smart City)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안양, 송도, 판교, 남양주 등의 대표적 한국 스마트도시의 성공적 구축사례를 소개하고 타국가의 경우와 차별화 되는 한국형 스마트도시사업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이재용 국토연 연구위원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현황과 과제’ 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 개발사를 설명하고, 정부, 민간, 학계, 산업계의 역할분담체계와 법제도 지원체계 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상건 국토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4대 스마트도시 개발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안양, 송도, 판교, 남양주 등의 대표적인 스마트도시 개발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이들 한국형 스마트도시의 서비스의 질, 시민참여도, 관련기관간의 협업체계 등의 측면에서의 우수성을 피력했다.

특히, 스마트시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가지 이슈로서, 사적생활보호, 맞춤형 설계, 공공 부문과 추진주체 역할 그리고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제시해 많은 토론과 관심을 모았다.

한편,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총재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Luis Alberto Moreno)는 폐회사를 통해, 향후 중남미 지역의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이 점차 핵심지원사업으로 대두될 것이며,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국의 풍부한 스마트시티 구축경험과 노하우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국토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지식공유 사업(KSP)과 한국신탁기금(KTF) 등을 통해 브라질 고이아니아, 자메이카 몬테고베이,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등의 스마트시티 기본설계 컨설팅을 활발하게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최근 1년간은 IDB와 공동으로 세계 10대 스마트시티 구축사례 분석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해 이번 에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지난 5년 동안 국토연구원은 다양한 연수와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콜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등의 중남미 핵심협력국가들의 고위공무원을 초청해 안양, 송도, 판교 등의 대표적인 한국 스마트시티를 견학시킴으로써 IDB 내의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붐을 일으킨 바 있다.

최근 스마트시티사업의 해외진출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연구원은 IDB와의 다양한 국제협력 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해, 향후 중남미지역의 스마트 도시구축사업에 한국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더욱 주력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이오주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